

'엄마풀에 안겨 생애 첫 무용 본다' 영유아 공연

'우주·아이·삶·춤'... ACC 어린이문화원 오는 17~19일



엄마 풀에 안겨 생애 첫 공연을 관람하는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영유아를 위한 무용 공연 '우주, 아이, 삶, 춤'을 오는 17~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생후 12~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연이다. 가장 어린 나이의 관객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접하는 공연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무대에 옮겼다.

'우주, 아이, 삶, 춤'은 '곤지곤지,

도리도리, 잼잼' 등 아기를 어르는 전통 육아법인 단동십훈(檀童十訓)의 움직임을 무용에 담았다.

3명의 안무가들이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 자극에 주역하는 몸짓을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관계자는 "영유아를 위해 제작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와 소통할 수 있다"며 "무용이라는 예술이 어린 관객들과 만나고, 예술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영유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영유아극을 기반으로 한 연극놀이, 예술교육체험프로그램으로 확장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영옥 기자

광주시향 더위 날려줄 시원한 클래식 무대

1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개의 주제로 구성된 다채롭고 역동적인 곡이다.

두 번째 무대는 트럼펫의 화려한 기교를 볼 수 있는 아르투니안의 트럼펫 협주곡이 트럼펫리스트 성재창의 협연으로 연주된다.

마지막 무대는 밝고 유쾌한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선보인다. 베토벤의 작품 중 생기와 울동이 어우러진 활기찬 곡이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이번 무대는 여름 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구성했다"며 "클래식 연주를 통해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기 끝했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광주시립합창단 모차르트 레퀴엠 무대

1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평화·안식 기원'

한다.

보훈의 달, 평화와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치유의 합창음악회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은 1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제189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레퀴엠'을 선보인다. 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6월 보훈의 달을 추념하기 위해 평화와 치유를 기원하는 곡들로 구성됐다.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뒤티플레의 '자비'를 베토소서(카리에·Kyrie)로 문을 연다. 작품은 죽음을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다룬 진혼곡의 두 번째 악곡으로 무반주 합창곡 선율에 오르간 연주가 더해졌다.

오르가니스트 박영서가 협연

목포서 락뮤지컬 '프리즌' 공연 개최

18일 저녁 7시30분 문화예술회관...컬투 정찬우 제작

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마치 콘서트 현장을 찾는 공연 1순위', '단체 관람이 가장 많은 공연 1순위', '관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공연 1순위' 등 여려 수식어를 차지하고 있다.

만 7세 이상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관람할 수 있는데 관람료는 R석(1층) 1만원, S석(2층) 5000원으로 지정좌석제가 시행된다. /목포=박종배 기자

광산농악보존회 '문굿·판굿' 무대... 농악놀이 최고 기량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산농악전수교육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광산농악은 마륵동의 판굿 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고씨움들이 농악, 소촌동의 당산농악, 산월동의 풍장농악, 옥동과 유제동의 결립농악 등이 집대성됐다. 1992년 3월 16일 광산농악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됐으며 지난 2020년 10월 광산구 하남동 가야제 옆에 광산농악 전수교육관을 개관했다.

/이동기 기자

떨어지면 끊거나게 돼 농악대는 온 힘을 다해 농악무대를 펼친다.

'판굿'은 광산농악의 전과정 중 마지막 무대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대농놀이를 펼친다. 치배들의 뛰어난 기량과 잡색들의 재담, 가락을 중심으로 한 음악적 요소, 무용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광주공연

17~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

유니버설발레단은 한국 발레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목표로 1984년 창단된 대표 발레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유니버설발레단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대작이다"며 "무용수들의 개성 넘치는 기교와 변주보다는 까다로운 교과서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작품은 클래식 발레의

성공 스토리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작한 코믹 락뮤지컬이다.

목포서 락뮤지컬 '프리즌' 공연 개최

18일 저녁 7시30분 문화예술회관...컬투 정찬우 제작

또 깊은 잠에 빠진 웅장한 왕궁을 재현한 무대 세트와 화려한 궁중 의상, 고전 발레의 기본기가 격렬하게 훌련된 60여명의 무용수가 출연하는 대작이다.

/이영옥 기자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설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 여성으로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뻐지는 일석이조!!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입니다.
-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